

배합사료 생산량으로 본 종오리 사육동향과 향후 전망

조 문 규 국장

국내 오리 사육업계

오리는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종자개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육되고 있는 축종 중의 하나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생산되는 육용오리는 연간 2천5백만수 내외가 사육되어 도축되고 있으나 이를 생산하는 종오리에 대한 정확한 사육량이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종오리를 사육하는 농장들은 육용오리 사육농장과는 다르게 대부분이 배합사료를 이용하여 종오리를 사육하는 것이 정착되어 배합사료 생산량 중 종오리 사료 생산량을 기초로 어느 정도 사육량을 추정할 수 있다.

그간의 종오리 사료 생산량을 기초로 종오리 사육량을 추정



해봄으로써 지난 7년간 종오리 사육업계가 얼마나 성장해 왔고 향후 종오리 사육과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종오리 사육량 변화

지난 95년도 이후 종오리 사료 생산량과 분기별 생산량은 <표1>과 같다. 즉 지난 2천년도 종오리 사료 생산량은 22,624톤으로 6년 전인 지난 95년도 생산량 11,450톤에 비해 198% 증가하여 종오리 사육업계의 성장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기초한 국내 종오리 사육량은 <표2>와 같이 추정된다. 즉 종오리 수당 일일 240g의 배합사료를 먹는 것으로 기초하여 추정된 종오리 사육량은 2천년도 총 2백51만1천수의 암컷 종오리가 새끼생산에 가담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2천년

도 새끼생산에 가담한 월평균 암컷 종오리 사육량은 20만9천수로 95년도 월평균 사육량 10만6천수에 비해 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종오리 사육량에 기초하여 종오리 생산성을 평균 산란율, 부화율 65%로 감안한 새끼생산량을 추정할 때 2천년도 새끼생산량은 3천1백80만수에 달하며 95년도 생산량 1천6백10만수에 비해 무려 1천5백70만수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1> 연도별 종오리 사료생산량

연도별	오리사료총생산량	종오리사료생산량	월평균생산량
95	81,520	11,450	954
96	128,088	15,605	1,300
97	146,162	18,218	1,518
98	108,241	14,136	1,178
99	173,319	21,226	1,768
00	234,166	22,624	1,885

<표2> 연도별 산란 종오리(암컷) 사육량

연도별	종오리 사육량(천수)	월평균 종오리 사육량(수)	증감(%)
95	1,270	105,912	100
96	1,732	144,346	36
97	2,022	168,516	16
98	1,569	130,758	-23
99	2,356	196,340	50
00	1,666	238,272	6
01.7	1,666	238,095	14

이같은 새끼생산량을 기준으로 지난 2천년도 새끼오리 평균가격으로 추정한 새끼오리 시장규모는 약 210억원내외로 지난 95년도 170억원에 비해 12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천년도의 새끼생산량은 95년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새끼오리 평균 가격은 658원으로 95년도 평균가격 1,050원에 비해 약60%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종오리 사육업계는 지난 2천년을 기준으로 볼 때 95년도에 비해 사육량에 있어서는 배 이상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시장규모는 새끼오리 가격하락에 의해 40% 증가하는데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종오리 사육량에 있어 특이할만한 사항은 95년도 새끼오리 가격이 호황기 이후 다음 연도에 종오리 사육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이듬해에는 어김없이 불황이 찾아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95년부터 97년도, 98년도부터 2천년도가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아무튼 연도별 종오리 사육량은 98년도에 크게 줄어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종오리 사육량을 분석해 보면 7월말 현재 종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13,383톤이 생산되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오리 총 사육량은 1백66만6천수로 월평균 23만8천수가 사육되어 전년도 월평균 사육량에 비해 14%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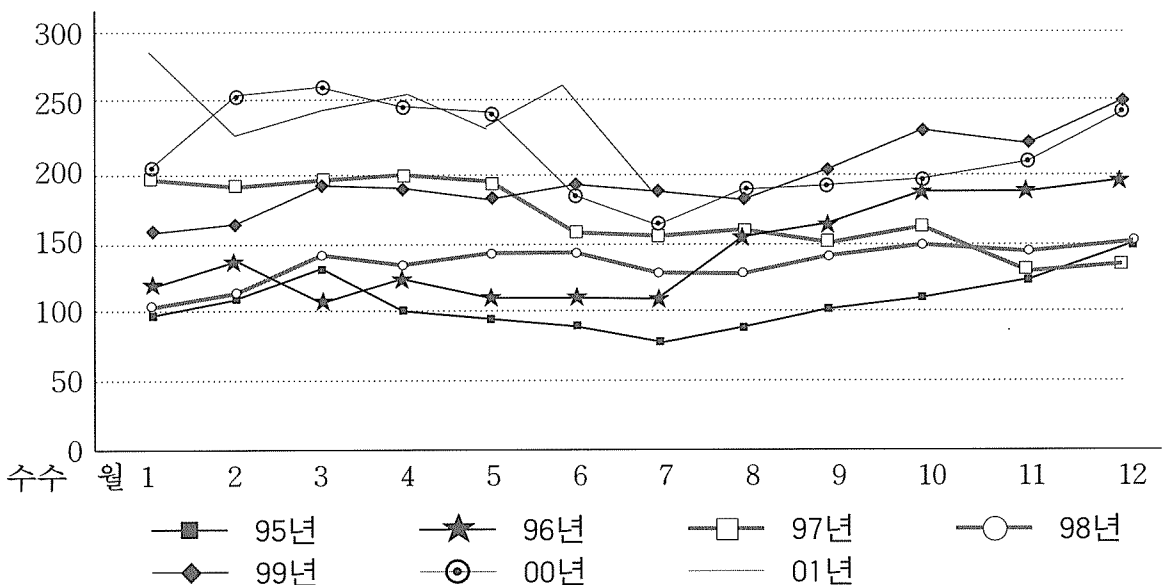
연도별 월, 분기별 종오리 사육량 변화

연도별로 월별, 분기별 종오리 사육량을 추정

해 보면<그림 1>과 같다. 즉 비교적 새끼오리 가격이 좋았던 95년도의 경우 종오리 사육량은 중반기에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96년도는 2/4분기까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3/4분기부터 사육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97년도는 1/4분기에 크게 증가한 사육량이 3/4분기에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98년도 3/4분기까지 이어졌고 4/4분기 이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98년도 4/4분기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종오리 사육량은 99년도까지 이어졌고 2천년 3/4분기 이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2천1년 1/4분기, 2/4분기에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7월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1>



종오리 사육량에 따른 경기 변화

연도별 종오리 사육량 증가에 따라 새끼오리 가격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끼오리 가격이 좋았던 시기는 95년과 98년, 비교적 높은 시세를 유지한 해는 96년과 99년, 가격이 좋지 못했던 시기는 97년과 2천년도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좋았던 시기에는 어김없이 종오리 사육량이 대부분 줄어드는 시기였다는 것이며 가격이 높았던 해는 그 다음해까지 이어지며 가격이 폭등한 후 3년차에는 어김없이 가격불황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98년도의 경우 중국산 가금육 수입이 중단되고 국내 경제가 파탄에 직면했던 시기여서 이같은 가격주기가 전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연하게도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역시 이같은 주기로 보면 새끼오리 가격이 좋아야 할 시기이나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같은 추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 소비량 위축 요인의 발생으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 지난해 종오리 사육업체의 불황에도 종오리 사육량 감소기간이 연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짧게 끝나고 11월부터는 다시 증가했던 것도 올해 새끼오리 가격이 연말까지 이어지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3> 연도별 새끼오리 가격

연도별	새끼오리가격(수당)	증감(%)
95	1050	100
96	800	-31
97	650	-23
98	1067	64
99	827	-29
00	658	-25
01.7	756	15

향후 종오리 사육 및 시장전망

현재와 같은 육용오리 시세가 지속되는 경우 올해 새끼오리 가격이 좋아질 것인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새끼오리 가격이 불황기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이같은 상

황에서 최근 부화장들이 지난 7월과 8월 종오리 사육량을 줄인 것으로 7월 종오리 사료생산량을 기초로 볼 때는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화장들의 생산동향을 보면 대규모 부화장들은 일부 생산성이 떨어지는 종오리를 줄였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소규모 부화장들은 많은 양의 종오리를 줄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종오리 사육량은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부화장들은 종계 사육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소규모 부화장들은 새끼오리 적정 판매량을 감안하여 움츠러든 상황에서 종오리 사육량 증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규모 부화장들은 사육량을 더욱 늘리는 공격적인 경영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종오리 부화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올해 중국산 가금육 수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종오리 사육업계의 판도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종오리 사육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소비량의 상당부분이 수입육으로 다시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지 않는 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사육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다 내년도 국내 경제전망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임을 감안할 때 오리고기 소비량 역시 큰 폭 증가는 힘들 것으로 예측되어 종오리 사육량 증가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